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세션 7, 신의 형상, 로버트 C. 뉴먼, 종합, 인간의 구성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과 죄의 교리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7, 신의 형상입니다. 로버트 C. 뉴먼, 종합, 인간의 구성.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은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으로써 어떤 중요한 면에서 우리와 같이 만드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세상, 삶, 관계에서 당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로버트 C. 뉴먼의 사역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제안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미지의 관계적 측면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 C. 뉴먼 박사는 인류의 신 이미지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논문, 성경 신학에서 본 인간에 대한 신의 형상에 대한 몇 가지 관점, IBRI 연구 보고서 21호, 1984년은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먼은 자신의 논문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인간을 신의 형상으로 보는 매우 유익한 방법은 신이 자신에 대해 주신 그림, 즉 다른 사람이나 창조된 환경의 다른 부분과의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유추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자신에 대해 주신 그림, 즉 인간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유추를 고려함으로써 신의 형상을 지닌 남자와 여자에 대해 배웁니다."

다음은 이 중 일부에 대한 요약입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무생물, 식물, 동물, 인간 사회, 가족과의 관계에서 인간.

무생물과 관계된 인간. 도예가와 진흙. 신은 창조자, 위대한 도예가.

인간은 그의 피조물로서 도자기를 만들 때 신을 반영합니다. 이사야 64:8. 이사야 29:15, 16. 이사야 45:9. 인간은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창의성은 신의 위대한 창조자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도예가, 대문자 P가 우리를 이 점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창의성에 대한 이 아이디어와 관련된 것은 목적이나 디자인입니다.

도예가는 마음속으로 그릇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실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릇을 빚어냅니다. 그래서 위대한 도예가이신 하느님은 자신의 목적을 계획하고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9:19-24.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그림의 또 다른 측면은 주권입니다. 도예가는 진흙에 대한 실제적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그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용문, 신이시여, 실례합니다. 인용문이 아닙니다. 신과 비슷합니다. 도예가와 진흙 그림은 인간 속의 신의 형상이 창의성, 계획, 주권을 포함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신은 인간이 다른 것들과 맺는 관계에 비유되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신을 상상합니다. 식물과 관련된 신, 정원사나 농부와 식물.

인용문, 뉴먼을 인용하면, 농부는 나무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심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본다. 마찬가지로, 신도 우리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열매를 맺는다는 측면에서 언급한다. 이 모든 것은 뉴먼의 팜플렛 5페이지에 나와 있다.

여기서 인간은 식물을 돌보고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신을 반영합니다 . 농부가 좋은 식물과 열매 없는 식물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은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한 신의 반응을 반영합니다. 요한복음 15:1-9.

에스겔 15:1-18. 마태복음 3:8, 10. 이 그림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형상에는 돌봄, 계획, 축복, 판단이 포함됩니다.

동물, 목자와 양과 관련된 인간.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가시는 것처럼. 이사야 53:6. 누가복음 15:4-7.

목자가 양 떼를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23:2-3. 시편 80, 1절. " 목자가 양 떼에게 목초지를 찾아 먹이 듯이 ,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육체적, 영적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시편 23:1-2. 에스겔 34:12-15.

뉴먼 팜플렛의 여섯 번째 페이지. 목자가 양을 적에게서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예레미야 50:5-10, 18-19 . 에스겔 34:12-16. 시편 23:4. 요한복음 10:11-18.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님도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5:32-33. 사람은 하나님을 모방하여 그의 백성을 찾고,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사람인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묘사한다.

인간 사회, 왕, 그리고 신하와의 관계에서 인간 . 지상의 군주가 영예를 받을 만한 것처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영예를 받으실까요? 말라기 1:14. 왕이 신하들을 다스리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시편 29:1-11. 디모데전서 6-15. " 왕이 의로운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벌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니라." 누가복음 19:11-27. 마태복음 22:1-14. 팜플렛 8페이지.

이 그림에서 인간은 통치하고, 축복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영예를 받을 만한 존재라는 점에서 신과 같습니다. 가족, 부모, 자녀, 남편, 아내와의 관계에서 인간. 부모는 자녀를 낳거나 입양합니다. 신은 둘 다 합니다.

요한복음 1:12-13. 베드로전서 1:3.

갈라디아서 4:4-7. 로마서 8:14-19. 자녀가 좋은 행실로 부모에게 영광이 되듯이, 신자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가족적으로 닮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1-10. 마태복음 5:43-48. 요한복음 8:36-47.

하느님은 좋은 아버지가 하듯이 그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마태복음 7:7-11 . 히브리서 12:5-11.

누가복음 15:11-32. 우리는 자녀를 낳고, 경건한 가족적 모습을 보이며, 자녀를 부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반영합니다.

결혼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24.

부부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편 45:11과 15. 이사야 62:5.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하나님,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25.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친밀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 속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의 기쁨, 그의 사랑, 그리고 그와 그의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결합의 친밀함. 이것의 흥미로운 결과는 우리의, 이러한 다양한 관계 중 일부에서, 제한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부모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확신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전반적으로 잘 키운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친절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하지만 항상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는 방식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겸손하고 심지어 확신을 주는 일입니다.

체계적인 종합. 우리는 신의 형상 교리를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많은 측면을 연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이고, 저는 인간 안에 있는 신의 형상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어도 다섯 가지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개요. 형상에는 본질적, 기능적, 관계적 측면이 있습니다.

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입니다. 세.

우리는 이미지의 구속적-역사적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되고, 타락하고, 구속되고, 완성된 이미지. 넷째.

우리는 그 이미지가 인간을 신, 동료 인간, 그리고 신의 창조물과의 관계에서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구원받은 인류의 총합은 그 이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 존재의 전체에서 우리는 신을 이미지합니다. 하나하나씩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삽질 작업을 마쳤습니다.

종합할 때가 되었는데, 이는 체계적 신학이 해야 할 일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우선, 이미지에 본질적, 기능적, 관계적 측면이 있다. 이것들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제가 역사 신학에 대한 작고 매우 간략한 개요를 소개하면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소개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질적 또는 구조적, 베르딩은 기능적, 브루너는 관계적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함께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학 513페이지에서 한 진술에 동의합니다. "이미지는 주로 본질적이거나 구조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이미지는 인간이 만들어진 방식에서 인간의 본성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콜로새서 3:9, 10과 에베소서 4:22-24의 바울 본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 결론에 동의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2항, 대요리문답 17번, 소요리문답 10번, 버크호프 체계신학 204쪽을 비교해 보세요. 하지만 에릭슨은 본질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성경 신학의 결실을 체계적인 공식화에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의 취급은 후크마가 제시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미지의 구속적 역사적 단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의 책, 그리고 로버트 뉴먼이 제시한 자료 유형을 포함함으로써 강화될 것입니다. 후크마는 기능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이 성경에서 우세하다고 말한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 측면을 축소합니다.

이제 호케마, 호케마, 에릭슨은 본질적인 측면을 과장했습니다. 호케마가 옳습니다. 영지주의를 포함하면 이미지의 관계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 더 많은 것이 있고, 이미지의 관계적이고 기능적인 측면과 관련된 구절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후크마는 본질적인 측면을 조금, 너무 과장해서 표현합니다. 종합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인식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신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형상대로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인간, 인간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그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인간은 창조주와 교제하기 위해 창조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이미지의 본질적 또는 구조적 측면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미지의 기능적 및 관계적 측면에 대해 더 자주 언급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나머지 창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땅 위의 작은 주인이 되어 주님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신, 동료 인간, 그리고 창조물과 신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뉴먼의 공헌은 기능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성경적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리드를 따르고 신의 이미지에 대한 그의 결론을 속성과 표현의 선을 따라 전통적인 실체적 개념과 연관시킨다. 이미지에 대한 실체적이고 구조적인 강조는 속성이다. 이미지에 대한 기능적이고 관계적인 관점은 속성의 표현과 같다.

명사와 동사의 개념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실체라는 것은 실제로 언어학에서 명사를 차지하는 것을 명사가 차지할 수 있는 슬롯이나 대명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단어 놀이입니다. 실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체적 관점은 명사와 같고 기능적 및 관계적 측면은 동사와 같습니다.

인간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성서적 그림은 그가 신의 모습으로 창조된 결과입니다. 도예가, 정원사, 농부, 목자, 왕, 신하, 부모, 자녀, 남편이자 아내로서의 신은 신의 어떤 것을 반영합니다. 뉴먼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서적 그림에 대해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도예가 인간에 대한 성경적 그림은 창조, 계획, 주권 행사에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도예가는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고 있으며, 그것은 확실히 그것의 축소판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비유 때문에 그 진흙으로 일하는 사람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세상과 그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원사와 농부에 대한 성경적 그림은 하나님의 돌봄, 계획, 축복, 판단에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잡초를 뽑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웃음이 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러한 비유 때문에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것은 저에게 강력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일한 역할과 관계에서 동일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로서의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반영됩니다. 우리는 그가 그의 백성을 찾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심판하는 것을 숙고합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인간이 존경을 받고, 통치하고, 축복하고, 심판받을 만한 존재라는 데 반영됩니다.

부모로서의 신은 자녀를 낳고, 부양하고, 징계하는 데서 신을 반영합니다. 남편으로서의 신은 관계를 맺고, 권위를 행사하고,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고, 친밀감을 나누고, 충실함을 보이는 데서 신을 반영합니다. 로버트 뉴먼은 평생 독신이라고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그는 도서관 구석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는 것이 그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집을 사서 남자 학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집의 각 구성원의 책임 중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요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회적 상황에 스스로를 강요했고, 저는 그를 칭찬합니다. 그것은 그를 더 나은 인간, 신의 자녀, 그리고 확실히 더 나은 교수로 만들었습니다. 종합과 결론을 통해 이미지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완벽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론은 성경적으로 인류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궁극적인 모델이자 종말론적 목표입니다. 예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의 성육신에서 그는 그 형상을 완벽하게 드러냅니다.

에릭슨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완벽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인간에 대한 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라고 요약하면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에릭슨의 *기독교 신학* 5, 14, 15쪽 .

신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는 무엇보다도 모범이 아닙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이자 구세주이시지만, 그는 우리의 모범입니다.

신약성서, 성경은 그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는 모델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언젠가 불멸과 영광을 입으면 예수의 형상에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신의 형상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은 후크마이며, 이마고 데이 교리를 제시할 때 구속적 역사적 관점을 포함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인간은 타락 후 창조 시에 이러한 구속적 역사적 단계에서 보아야 하며, 형상은 왜곡됩니다. 타락 후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형상은 영원한 상태에서만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이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는 네 가지 구속적 역사적 격자가 많은, 많은 성경적 교리와 개념을 생각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후크마는 이 이미지가 인간을 세 가지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창조와의 관계로 포함한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뉴먼의 연구와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인 예수의 삶에 대한 조사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러한 각 영역에서 그 형상에 대한 우리의 반영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관점은 우리가 보게 되듯이 실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인류의 총합은 이미지의 관계적 측면을 가장 크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과 같은 영적 은사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또한 모든 족속, 언어, 백성,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의 구원받은 인류로 연합된다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5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인류의 총합이 우리의 세 가지 관계, 즉 *imago dei* 의 관계적 측면의 가장 큰 예이자 표현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인간은 이러한 관계적 측면의 추가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쿰은 인간이 존재의 전체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즉 , 우리는 신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크호프는 인용문에서 우리는 신체의 물질적 본질에서 이미지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혼의 자기 표현을 위한 적합한 도구로서 신체에서 발견됩니다.

인용문 닫기, 205쪽. 그러니까,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간의 손, 얼굴, 몸, 우리에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 바로잡아 주는 인간,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몸 없이, 물질화 없이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몸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인간 교리에 관한 세 가지 큰 주제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창조된 인간입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긴 것은 우리가 방금 끝낸 인간 속의 신의 형상입니다. 신학적 인류학에서 다루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측면인 인간 교리는 인간의 헌법적 본질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고, 중간 상태 구절과 삼분법적 증거 텍스트 모두인 성경적 데이터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삼분법에 문제가 있는 구절을 보고, 인간의 헌법적 본질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의 구성, 우리의 헌법적 본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합니다.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사실 세 가지 다른 견해입니다. 네 번째 견해는 두 번째 견해에 대한 다른 견해입니다. 일원론, 이분법, 삼분법, 조건적 통일성, 심신적 통일성 또는 전체론적 이원론.

일원론의 예로는 성공회의 JAT 로빈슨 주교와 DRG 오웬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인간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다양한 부분은 우리 존재의 전체를 지칭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일원론에 따르면, 인간이 되려면 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 상태에서 무육체적 존재는 부정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성경의 주된 강조점이 아니라, 몸의 부활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중간 상태에서 무육체적 존재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일원론은 틀렸습니다.

이제, 저는 일원론이 확실히 현대 철학과 과학의 지배적인 견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진 신학자들도 동의하고, 심지어 많은 복음주의자들조차도 이 일원론적 인류학에 항복하고 있으며, 저는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성경에 근거하여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분법, 찰스 호지, 루이스 버코프 . 이 관점은 인간이 두 부분, 두 개의 실체, 두 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물질적 부분인 신체이고, 두 개는 비물질적 부분인 영혼 또는 정신입니다.

Trichotomy, Franz Delitzsch가 이것의 한 예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것을 확인하는 신학자들의 예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견해는 인간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육체적 몸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애정, 욕망, 감정, 의지의 자리"인 영혼입니다. New Scofield Reference Bible, 1293쪽, 주석 2.

데살로니가전서 5:23에 따르면, 영혼은 애정, 욕망, 감정, 의지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영입니다.

이것은 영과 혼이 때때로 대조되거나 성경에서 구별되거나 더 나은 말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 서로 다른 실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다릅니다. 신의 의식과 신과의 소통을 인용하고, 알고, 할 수 있는 영, 인용문 닫기.

실례합니다. 삼분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둘 다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부 통일은 에릭슨의 용어입니다.

심신적 통일성은 후크마의 용어입니다. 전체론적 이원론은 존 쿠퍼의 용어로, 그는 Body, Soul, and Life Everlasting이라는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이 세 사람, 에릭슨, 후크마, 쿠퍼는 모두 더 현대적인 형태의 이분법을 고수합니다.

되는 중간 상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은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가 물질화된, 단일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에릭슨 537. 이 통일성은 죽음에 따라 바뀌는데,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은 살아가고 물질적인 부분은 분해됩니다. 그러나 이 무육체적인 중간 상태는 불완전하거나 비정상적입니다.

죽은 자의 미래 부활에서 그 사람은 다시 통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원론, 이원론, 삼분법.

이 조건적 통일성 또는 전체론적 이원론은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일종의 이분법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전체론적 인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부활한 존재로서 새 땅에서 영원히 살 방식입니다.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간 존재는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따라서 일원론처럼 이 조건적 통일성은 인간의 통일성을 강조하지만, 그 통일성을 절대화하지 않고 우리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두 부분은 보통 통일되어 있습니다. 일부 성경적 자료에 대한 검토. 중간 상태를 가르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43. 한 범죄자, 누가복음 23:39절부터, 교수형에 처해진 한 범죄자가 예수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같은 정죄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루크는 죽어가는 도둑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오늘 진실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날을 마지막 날 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에 여전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문은 용서받은 도둑이 그날 나중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과 합류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몸은 십자가에

남아 있었고 내려져 묻혔으므로 죽음에서 살아남는 인간 본성의 비물질적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워드 마셜, 누가복음에 대한 신국제 그리스어 성경 주석에서 인용문에서, 예수 의 대답은 믿는 도둑에게 즉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인용문 닫기. 도둑의 여정은 아버지를 당신의 손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여정과 맞먹을 것입니다.

나는 내 영혼을 43절에 맡긴다. 나는 또한 심표의 창조적 움직임으로 이 문제를 없애려는 해석을 거부한다. 나는 오늘 진실을 말한다. 심표, 미래의 어느 알려지지 않은 시간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본문을 읽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누가에 대한 주석에서 드러나듯이요. 빌립보서 123장은 중간 상태를 입증하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문맥을 읽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바울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19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이것이 내 구원에서 나올 것임을 압니다. 그는 감옥에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내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한 용기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생명으로든 죽음으로든 말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익이요,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열매 있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택할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내 바람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육신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나는 남아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하여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진보와 기쁨을 위해 계속할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표현합니다. 문맥상 그는 1절 21절이 삶과 죽음을 대조하기 때문에 죽음에 따라 몸을 추방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절 22절은 몸 안에서 계속 사는 것에 대해 말하고 , 3절 24절도 몸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으면 그리스도의 면전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의 몸은 썩어서 묻힐 것입니다. 그의 비물질적인 부분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혼과 때로는 영을 인간 본성의 중간적 측면과 죽음에서 살아남는 인간 본성의 일부로 언급하지만, 보통은 다른 방식으로 언급합니다. 보통은 인칭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죽어가는 도둑에게 말씀하셨고, 당신은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학이 육신 속의 현재 상태, 죽음 이후 부활 전의 중간 상태, 죽은 자의 부활 후에 따르는 최종 상태를 구분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중간 상태가 더 좋다면 현재 상태는 좋은 것입니다. 육신 속에서 살아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더 나은데,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하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고 , 좋고, 더 좋고, 가장 좋고, 긍정적이고, 비교적이며, 최상급의 형용사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상태, 중간 상태로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12:23은 온전해진 의로운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의 모든 중간 상태 구절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중간 상태가 지금 몸으로 주님을 아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현존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죽어가는 도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몸을 떠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 6, 8장.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6절, 우리는 몸에 거하는 동안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고, 차라리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 있든 떠나 있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각자가 몸에서 행한 일에 따라 선하든 악하든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 6, 8장은 우리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중간 상태 구절인데, 여기서 몸에서 거하고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바울은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과 대조합니다.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물질적 측면과 비물질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에 안주하고 지상의 육신에서 살 때, 그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면전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육신을 떠날 때, 그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가 떠나는 몸은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몸의 죽음에서 살아남아 주님의 면전으로 들어가는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상태 텍스트에 대한 결론.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구절들은 위의 일원론적 관점을 충분히 반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무육체적 존재가 불가능한 그런 단일체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하며 중간 상태에서 실현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우화는 사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무육체적 존재의 현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곳은 베드로후서 2:19입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베드로후서 2:9입니다. 베드로후서 2:9이지 19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힘을 느끼기 때문에 중간 상태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저는 에릭슨이 중간 상태를 불완전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부르는 것의 힘을 느낍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의 최종 상태는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도들의 의견과는 달리 무육체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몸에서 모아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외삽하면서, 우리가 또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잊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 속의 체계적 신학의 실패입니다. 우리의 최종 상태는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간 상태, 중간의 무육체적 영적 존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고려해야 할 다른 구절은 요한계시록 6:9, 10인데, 제단 아래의 영혼들이 복수를 외칩니다.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갖추지 못했지만, 정의를 위해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스테반처럼 들립니다. 그들이 스테반을 돌로 치자, 그는 외쳤습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그의 몸이 하늘에 있는 예수의 면전으로 즉시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몸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는 예수에게 그의 영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인용한 히브리서 12:23은 중간 상태에서 사후에 온전해진 의로운 사람들의 영에 대해 말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그 중 두 개의 삼분법적 증거 본문을 다룰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3, 히브리서 4:12. 이 본문들이 없다면 삼분법도 없을 테니, 이 본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과 죄의 교리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7, 신의 형상입니다. 로버트 C. 뉴먼, 종합, 인간의 구성.